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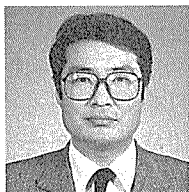
에이즈 극복을 위한 서광이 비쳐졌으면

이제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1993년도 저물고 희망찬 1994년의 새 아침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매년 묵은 해를 보내면서 아쉽지 않았던 해가 없었으나, 지난 해는 유독 못다 이룬 소망과 기대가 많았기에 아쉬움이 더 남는다.

이제 또다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크고 작은 소망과 기대 속에, 보다 만족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빌어본다.

더불어 우리 사회와 우리 이웃의 건강한 생활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사회와 이웃을 파멸과 죽음의 골짜기로 빠르게 몰아가고 있는 에이즈의 극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서광이 비쳐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또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제는 에이즈의 실체를 정확히 깨닫



김준명
연세의대 내과

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대비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 더욱 간절하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성공적인 에이즈 예방을 위해 우리 사회와 우리 이웃에게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에이즈는 결코 남의 나라의 불행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는 재앙이다.

둘째, 에이즈는 동성연애자, 마약중독자, 윤락여성과 같은 특수계층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다.

셋째, 에이즈의 치료제와 백신개발이 요원한 지금, 이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방뿐이며, 이는 건전한 성생활과 철저한 마약퇴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넷째, 에이즈의 만연은 무절제한





새해에는, 우리 사회와 이웃을
파멸과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가고 있는
에이즈의 극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서광이 비쳐졌으면 한다.

향락주의와 타락한 성윤리에 그 원인이 있는 만큼, 무너진 성도덕과 윤리관의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제 희망찬 1994년을 맞이하면

서 보다 나은 우리 삶과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조용히 반성하고 가다듬으면서 한해를 시작해야 하겠다. ㉔

새해아침에 바란다

나. 가족, 이웃의 건강위한 노력을 !

甲戌年, 건공(犬公)의 해의 새해 새아침이 밝았다.

누구나 새로운 해를 맞으면 그 새아침에는 새로운 설계와 각오로 마음을 가다듬으며 경건한 자세로 자신을 돌아보고 한해를 생각하게 된다.



노영수

의사신문편집부국장

많은 이들은 거창하고 장미빛의 계획과 소망을 하게 된다. 그러다가 세월을 지내다 보면 한낱 설계와 생각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아침에는 꼭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설계부터 하